



LG유니참, 친환경 에너지 기반 ESG 경영 강화

LG유니참이 친환경 에너지 기반 다양한 공생 활동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한다. LG유니참은 올해 태양광 발전량은 약 122만 6000k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업계 최초로 메인 생산 설비에 태양광 그린에너지를 도입해 '쏘피 쿨링 프레쉬', '쏘피 오가닉 무표백' 등 주요 위생용품 생산해 오고 있다.

/LG유니참



SK이터닉스, 밀알복지재단에 겨울키트 기부

SK이터닉스는 지난 6일 임직원들과 '따뜻한 겨울나기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밀알복지재단에 키트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추위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임직원 20여명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활·방한용품 8종을 담은 키트를 직접 제작했다.

/SK이터닉스



롯데GRS, 이주배경아동에 한국어 교육 지원

롯데GRS는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과 함께 '2026 한글날 100주년 기념 이주배경아동 한글·진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주배경 아동의 언어 장벽을 낮추고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GRS는 한국어 교재와 자석 글자, 낱말 카드 등 맞춤형 한글 교육 교구재를 지원한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롯데GRS



'노벨화학상' 기타가와 교수, 고려대서 강연

고려대는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대강당 김양현홀에서 제12회 Next Intelligence Forum(NIF)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스스무 기타가와 교수가 공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를 분리·저장·활용하는 기술이 미래 산업의 주요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등 기체를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연구 사례도 소개했다.

/고려대



삼육대, 오는 23일 개교 120주년 기념식 열어

삼육대는 오는 23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 홍명기홀에서 개교 1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S U-RISE 미래캠퍼스' 계획을 소개하고 새로운 워드마크도 공개할 예정이다. 'SU-RISE 미래캠퍼스'는 교육·문화 복합시설을 지하 공간에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삼육대는 캠퍼스 공간을 재구성하고 교육과 문화 기능을 결합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삼육대

삼성전자, '아트 스토어'에 빈 박물관 소장품 43점 추가

(오스트리아)

루브르 박물관 이어 콘텐츠 강화 작품 바벨탑·회화의 예술 등 선배 무반사 디스플레이 기술 적용

삼성전자가 유럽 주요 미술관의 소장품을 TV로 옮겨오며 아트 구독 서비스의 콘텐츠를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7일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43점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이어 빈 미술사 박물관의 명작도 집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조나단 파인 빈 미술사 박물관 연합 총괄 관장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명작을 감상할 수 있어 예술의 문턱이 낮아지고, 화면으로 만난 벽찬 감동이 실제 박물관 방문으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 미술사 박물관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집품을 바탕으로 1891년 개관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

했다. 특히 브뤼헐의 회화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한 곳으로 화화관에서는 15세기 초기 유화부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이르는 유럽 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은 피터르 브뤼헐 1세의 '바벨탑',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회화의 예술', 구스타프 클림트의 '누다 베리타스' 등이다. 아르침볼도의

'여름'과 카날레토·벨로토가 그린 베네치아와 빈의 풍경화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화풍과 시대, 분위기에 따라 작품을 골라 TV 화면을 꾸밀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작품의 세부 표현을 살리기 위해 미술관이 제공한 고해상도 이미지에 무반사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했다. 화면 표면의 특수 코팅이 빛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켜 햇빛이나 실내

현대모비스, 현장 담은 다큐 '3관왕' 한글날 100주년 맞아 'HS효성체' 배포

프랑스 칸 기업광고제 등 수상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현장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단순히 전문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원들의 도전과 현장 이야기를 콘텐츠로 풀어내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모습이다.

현대모비스는 스웨덴 동계시험장에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원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Why Fight Cold?'가 글로벌 주요 콘텐츠 어워드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프랑스 칸 기업광고제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오토모티브 부문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됐다. 또 북미 지역 대표 콘텐츠 시상식인 텔리어워드에서 은상을, 아시아 지역 뮤즈 크리에이티브 어워드에서는 다큐멘터



현대모비스 연구개발 다큐멘터리 /현대모비스

리와 오토모티브 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20여 분 분량의 영상에는 전자식 제동시스템(EMB), 후륜조향시스템(RWS), 에어서스펜션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새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영하 40℃까지 내려가는 스웨덴 동계시험장에서 반복적인 검증을 거치며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양성운 기자 ysw@

HS효성, 전용 서체 무료 공개

HS효성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전용 서체 'HS효성체'를 무료로 공개한다.

HS효성은 임직원의 제안을 반영해 전용 서체인 HS효성체를 홈페이지에서 무료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HS효성체는 2024년 7월 그룹 출범 당시 기업 정체성(CI)과 함께 선보인 서체다.

HS효성체는 별과 나무에서 영감을 얻은 CI 마스터리아(MASTERIA)의 디자인 철학을 담았다.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는 그룹 비전을 바탕으로 기하학적 산세리프 양식(Geometric Sans-serif)을 적용했다. 깔끔하고 균형 잡힌 형태와 높은 가독성이 특징이다.

이번 공개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임직원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 한 임직원은 "여러 문서에 회사 폰트가 적용된 모습을 볼 때마다 가독성이 좋고 브랜드 색깔이 잘 드러난다"며 "무료로 배포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용 서체의 외부 공개를 검토하던 HS효성은 대중과의 소통을 넓히고 한글 글꼴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안을 받아들였다.

HS효성 브랜드팀 관계자는 "이번 전용 서체 무료 배포는 HS효성의 '가치' 또 '같이'라는 가치경영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며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대중과 나누어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제네시스, 부산국제영화제 10년 연속 후원

의전차량으로 100여대 제공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공식 후원하며 10년 연속 파트너십을 이어간다고 7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2017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한국과 아시아 영화 산업의 저변 확대를 지원해 왔다. 올해 영화제 기간에는 주요 감독과 배우, 영화제 관계자를 위한 의전차량으로 GV90, G90, GV80 하이브리

드, GV80 블랙, GV70 전동화 모델 등 100여대를 제공한다.

지난 6일 열린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서는 브랜드 최초의 초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90 네오론'을 의전차량으로 운영했다. 영화제 기간 영화의전당 메인 스테이지 인근에도 GV90 네오론을 전시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제네시스가 제작을 지원한 메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 기념 단편영화 '플레시 임팩트'도 상영된다.

/양성운 기자

한글 붓글씨 뽐내는 '휘호대회' 열린다

내일 광화문광장서 진행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한 휘호대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2시간 동안 한글을 주제로 붓글씨를 선보인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원은 오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뒤편 육조마당에서 제17회 광화문광장 휘호대회'를 개최한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행사는 '한글,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열린다. 1차 예선에서 작품 심사를 거쳐 선발된 400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이 중 외국인인 100여 명으로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20여 개국 출신이다.심사 부문은 전통한글(궁체·관본체), 문인화, 캘리그래피 등으로 나뉘며, 참가자는 국내 일반인과 외국인, 장



지난해 열린 휘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붓글씨를 쓰고 있다. /한국예술문화원

애인, 학생으로 구분된다.

대회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한글을 주제로 붓글씨를 쓴다. 제한 시간은 2시간이다.

시상은 한국예술문화원이 서예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문체부장관상·서울시장상 등 각 부문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오는 12월 12일 열리며, 수상작은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촉 △위원 이성엽 △위원 박민철 △위원 양동훈

부음 ▲박차숙 씨 별세, 김광명 씨 부인상, 김태일·태훈 씨(군인공제회 건설인프라본부 건설사업팀장) 모친상 = 7일 오전 3시 3분, 부산 BHS동래한서요양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9일 오전 9

시,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582-1041 ▲신경도 씨 별세, 지선희씨 남편상, 신창주·신윤정(아시아나항공차장)·신혜영 씨 부친상, 이성춘(여수좌수영요양병원 원장)·김승현(중앙일보 논설위원)·조창호(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씨 장인상 = 6일 오후, 여천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8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여수 영락공원 추모의집. 061-685-4444